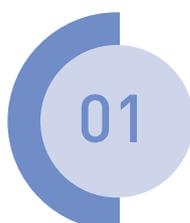


2020

10대 아젠다

J E O N B U K
I N S T I T U T E
A G E N D A 1 0

“희망의 2020, 전북대도약 포석을 마련하자!”



성장, 혁신, 전환으로 전북산업을 진화시키자

1. 주력산업의 회복과 차세대 신산업 선점
2. 초광역 프로젝트로 산업혁신 특화와 협력
3. 전북 미래를 견인할 연구개발(R&D) 체계 전환



산업과 민생이 공존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모델을 선도하자

1.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
2. 일자리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3.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중심 공동체 일자리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 혁신성장의 전환점을 이뤄내자

1. 도농융합상생을 통한 행복 삶터 만들기
2. 광역-기초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3. 지역에 기반한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새로운 비전으로 2단계를 준비하자

1. 새만금 광역교통 기반시설 적기 구축
2. 새만금에 그리는 미래도시, 기본계획 변경 추진
3. 환경과 개발의 균형, 지속가능한 새만금사업 토대 마련



대도약으로 준비하는 전북의 미래상을 만들자

1.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2. 2040년 전북의 미래상을 만드는 종합계획 수립
3. 빠르고 촘촘한 전북 광역 인프라 구축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도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춘화추실(春花秋實)」의 포석을 마련하여 총선을 전북대도약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북산업의 진화, 지역주도형 일자리모델 선도, 지속가능 농정 및 농생명 혁신, 인구문제 대비, 자치분권 대응, 역사·문화·관광 소프트파워 강화, 청정 환경 확보 등으로 「웅비의 천년, 전북대도약 시대」를 준비하자. 이를 위해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가 필요하다.

06

자치분권 및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으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자

1. 중앙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도민 맞춤형 행정혁신 추진
2.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3. 마을중심 도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전북형 사회안전망 구축

07

소프트 파워로 세계 속에 당당한 전북으로 발돋움시키자

1. 전북 가야, 무성서원, 전라유학 등을 통한 전북학 부흥
2. 체류형 여행으로 전북관광산업 체질개선
3. 메가이벤트 겹경사, 철저한 준비로 성공 개최

08

여성·가족 안전강화로 안심 전북 지켜내자

1. 젠더폭력 대응 정책추진 기반 강화로 안심·안전 전북 구축
2. 아동안전의 공공성 확대 및 보호체계 통합성 강화
3.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적 소비로 식탁안전 확보

09

장소매력을 높여 인구활력을 높이자

1. 사람활력·경제활력·공간활력으로 인구감소 대응
2. 지역연고와 정서적 유대를 연결하는 지역상생 인구정책 모색
3. 창조적 청년인재 유입으로 전북의 인구활력 증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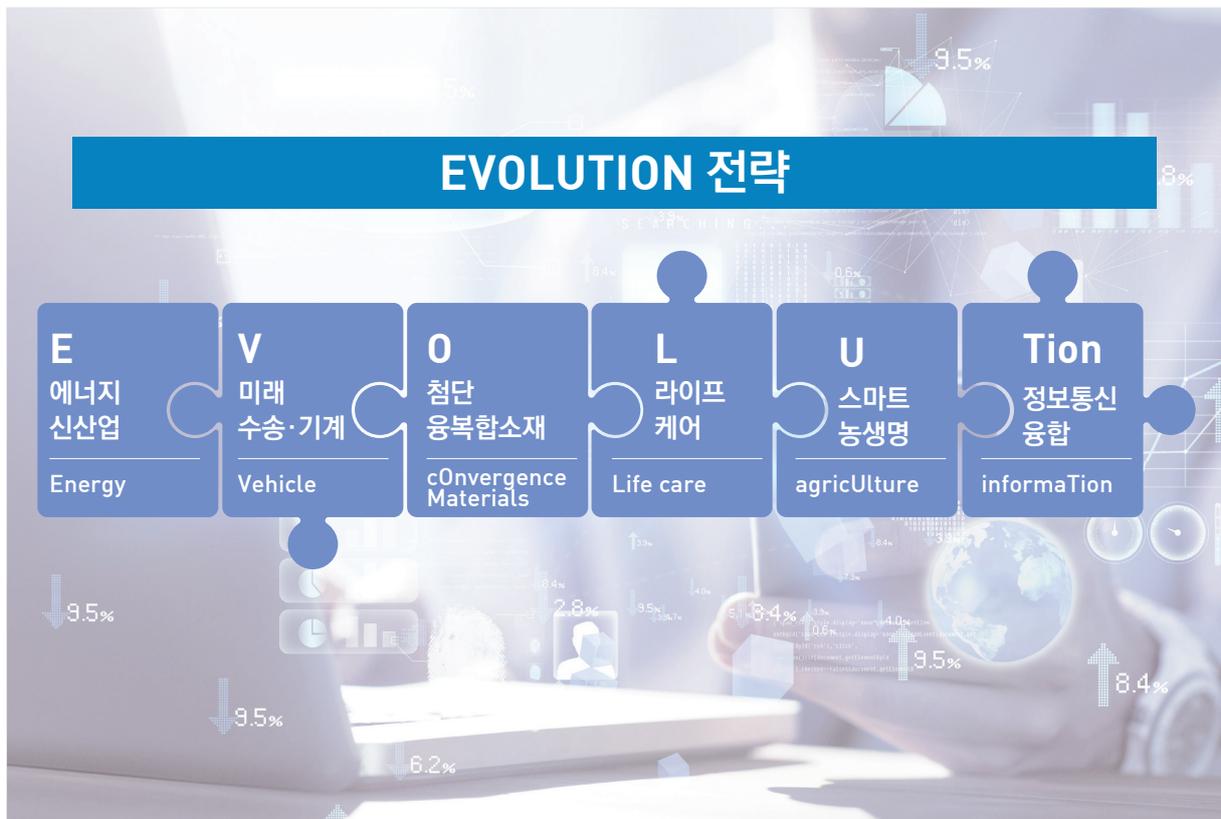
전북 최고의 자산, 청정 환경을 지켜내자

1. 건강 전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전략 실천
2. 자원순환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구축
3. 수질·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시스템 재구축

01 산업 분야 성장, 혁신, 전환으로 전북산업을

2020년은 전라북도가 준비한 상용차, 홀로그램이 예타 통과 후 예산이 투입되는 첫해이다. 그간 준비한 산업구조의 EVOLUTION(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추진전략도 본격화되면서 전북산업을 체질 강화와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총선을 계기로 전북경제의 미래먹거리인 신산업 발굴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과 지역주도적 혁신체계 개편도 관심이 요구된다. 주력산업의 성장, 혁신을 위한 개방과 협력, AI(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스마트한 산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EVOLUTION : Energy(에너지신산업), Vehicle(미래수송기계), cOnvergence Materials(첨단융복합소재), Life care(라이프케어), agricUlture(스마트농생명), informaTion(정보통신융합)



진화시키자



추진 과제 1 주력산업의 회복과 차세대 신산업 선점

전라북도의 산업지형을 바꿀 중점산업이 도출되었다. 6개 중점산업이 전북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도 뒤따라야 한다. 2020년에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홀로그램사업과 상용차 혁신성장사업이 전북산업 성장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들 사업으로 주력산업이 회복되도록 도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전북발전을 이끌 신산업분야를 발굴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퀀텀점프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트렌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어내고 전북의 몫으로 선점해야 할 것이다.

추진 과제 2 초광역 프로젝트로 산업혁신 특화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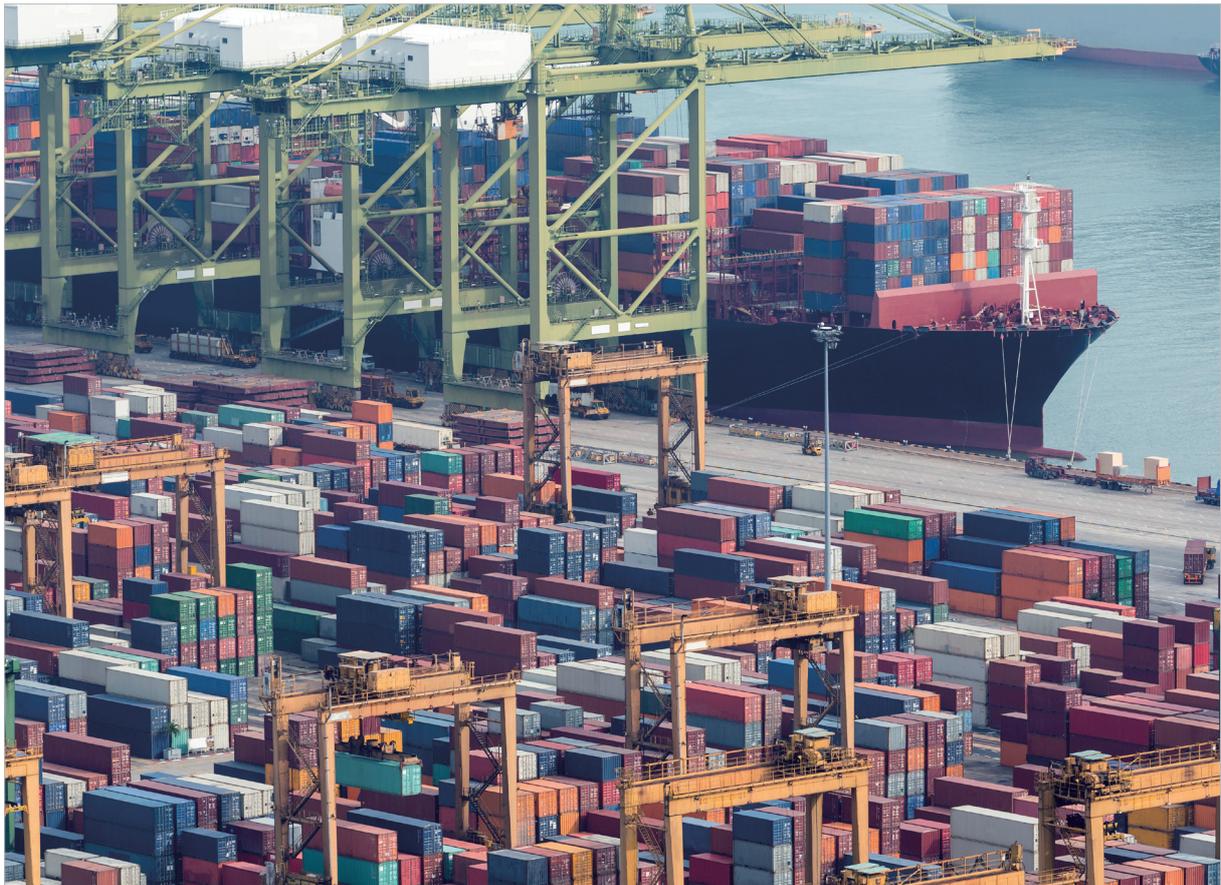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간 협력으로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확충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그간 탄소섬유, 홀로그램, 바이오화학 등 타 광역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저력이 있다. 미래형 자동차, 수소 등 국가적 미래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행정경계를 넘어선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에서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전라북도가 선도하는 초광역 프로젝트가 되도록 도차원의 충실한 준비가 요구된다.

추진 과제 3 전북 미래를 견인할 연구개발(R&D) 체계 전환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재정비가 요구되는 배경이다. 전라북도 또한 가장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고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살려 혁신성장을 일궈내야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부처 예산 확보에서 벗어나 지역산업의 종합적 발전구상에 더욱 많은 자원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전담 주관기관 등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내 산재해 있는 산업과 과학기술 관련 계획, 인력,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내야 한다.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부처기관, 과학기술 출연기관, 지자체 혁신기관 등의 연계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주어진 기회를 지역주도 성장모델로 완전히 전환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02 일자리 산업과 민생이 공존하는 지역주도형

2020년은 균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해이다.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대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확보해 왔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일자리 구조는 기업이 지역에서 철수하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대기업 종속형 일자리 구조였다. 하지만, 저성장 시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은 총선을 맞이하여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사업들이 제시되는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총선에 맞춰 균산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사,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전북형 지역주도 상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일자리모델을 선도하자



추진 과제

1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

전라북도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일자리창출 동력 확보, 특화 산업 진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미래 유망산업 일자리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일자리 거버넌스 및 일자리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은 산업혁신 엔진으로 견인하고 일자리 인프라로 추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 과제

2 일자리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전라북도는 인구유출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일자리 수급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 및 중장년 등 사회계층별로 일자리가 없어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자리복지 차원에서 사회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지원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직장 지원사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장년층 경력형 일자리 확대 등 사회계층별로 구직자의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추진 과제

3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중심 공동체 일자리모델 구축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여 지역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동체의 질적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2019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되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 및 인프라의 재편을 통해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창업 및 보육의 내실화 등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마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활동 기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03 농산 어촌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을 예고하고, 농촌신활력 플러스, 지역푸드플랜 등 농정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도농융합의 상생전략을 강화하고,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화 방안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많은 정책적 시도가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위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혁신성장의 전환점을 이뤄내자

추진 과제

1 도농융합상생을 통한 행복 삶터 만들기

사회적·문화적 변화로 농산어촌이 겪는 문제는 도시와 함께 해야 해결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교차이동, 農市생활, 문화공존, 교류여건 변화’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평면적이고 일회적인 도농교류를 넘어 ‘농촌과 도시의 융합과 상생’의 전략이 중요하다.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먹거리와 농촌어메니티’ 등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이 혁신적 수단을 통해 연대해 나가야 한다. 생생마을만들기 혁신, 사회적농업 확대, 농촌생활돌봄, 농촌후계자 마련 등 ‘행복 삶터’를 만들기 위한 도농융합상생의 실행을 준비해가자.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듯, 소비되지 않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추진 과제

2 광역-기초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공급정책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먹거리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의미한다. 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의 적극적인 소통과 짜임새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먼저 시·군에서는 공공(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먹거리 복지를 확장해가는 정책이 핵심과제로 제기된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구조를 보장하는 광역단위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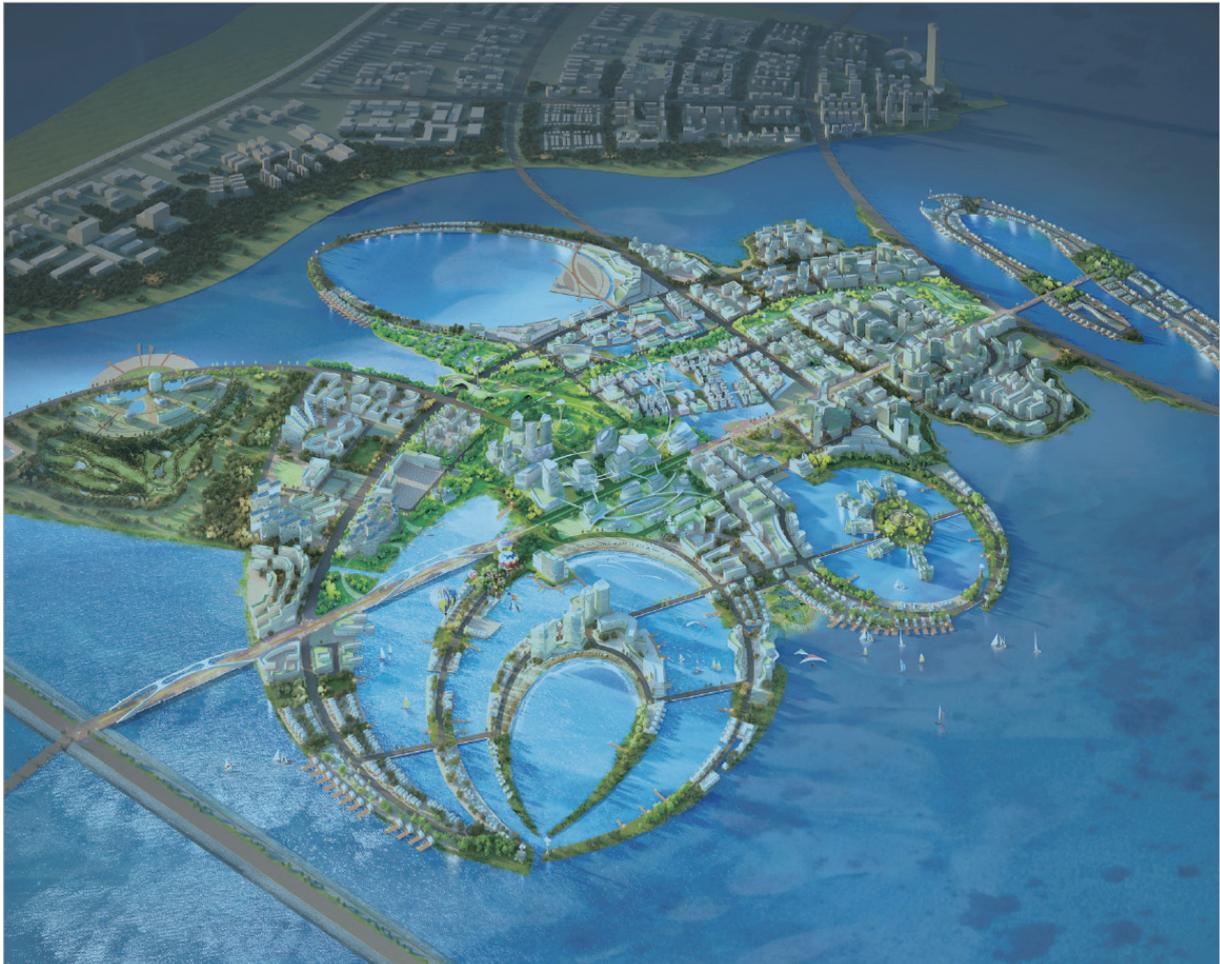
추진 과제

3 지역에 기반한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스마트농업과 농생명 자원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지역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더불어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과 산업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스마트 농생명 융복합 기술 개발과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생명산업의 대응력을 확보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04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새로운

2020년은 새만금방조제 개통(2010) 10주년이 되며, 새만금기본계획에 제시된 1단계 사업 종료와 함께 2단계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또한 2020년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의 준공을 시작으로 SOC 관련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새만금의 미래를 보여줄 기본계획 변경을 비롯한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착공 그리고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비전으로 2단계를 준비하자



추진 과제

1 새만금 광역교통 기반시설 적기 구축

2020년에는 새만금의 동서를 관통하는 동서2축 내부간선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남북2축 내부간선도로(1단계 '22년, 2단계 '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3년) 역시 2023년 새만금잼버리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공항은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예타 면제, 항만은 재정사업 전환 등 새만금의 글로벌 및 광역 교통시설 구축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새만금잼버리 개최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추진 과제

2 새만금에 그리는 미래도시, 기본계획 변경 추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착공되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선정도 본격화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새만금박물관도 착공된다. 새만금사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새만금기본계획이 그 동안의 성과와 4차산업혁명 등 미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변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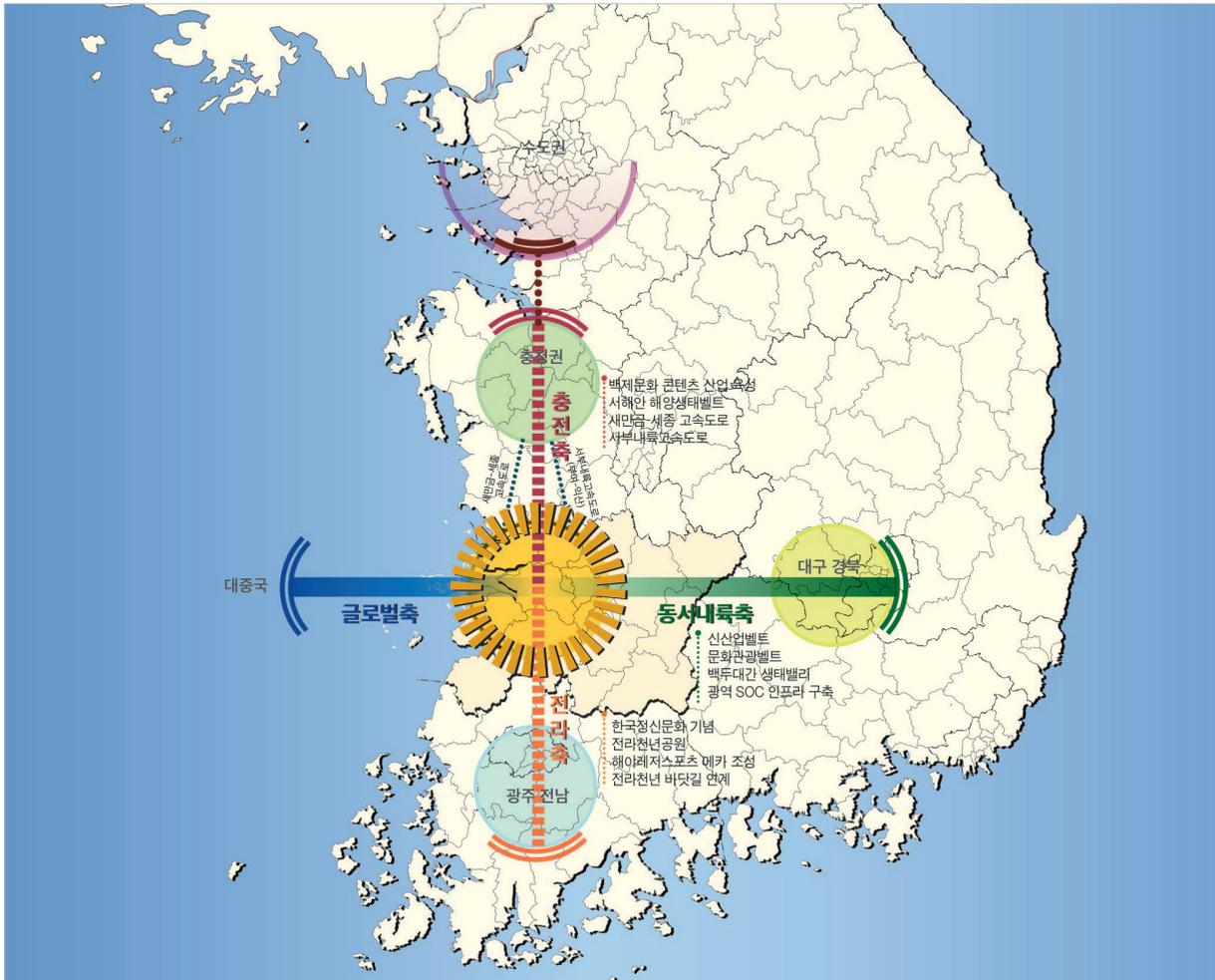
추진 과제

3 환경과 개발의 균형, 지속가능한 새만금사업 토대 마련

정부는 새만금 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2020)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평가가 2020년에 진행된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수생태 건강성, 인체 건강, 쾌적한 수변환경, 외해역 영향 및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종합대책의 평가 결과는 새만금호의 담수화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새만금사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05 지역 개발 **대도약으로 준비하는 전북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및 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인구축소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성장동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북 몫을 키우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천년 전북으로 비상하기 위해 대도약의 닳을 올렸다. 2020년은 전북대도약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도약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를 착수하여 준비하는 전북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첫 해가 될 것이다.





미래상을 만들자

추진 과제

1 전북대도약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전북대도약의 용비를 위해서는 ‘혁신성장 전북’, ‘상생발전 전북’, ‘글로벌 도약 전북’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혁신성장 전북은 미래 신산업 선도 및 지역 자원·사회혁신을 통한 내발적 성장이며, 상생발전 전북은 성장거점 강화 및 광역발전을 위한 포용·연계 성장, 글로벌 도약 전북은 동북아 경제 거점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한 천년의 비상이다. 전북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 산업의 퀀텀점프를 견인할 고령친화 라이프케어 신산업, 미래여행산업 육성, 공유경제를 넘어 공생(共生)경제로 전환, 동서남북으로 연계되는 광역벨트 조성, 중국과의 상생을 위한 한중夢 프로젝트 등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과제

2 2040년 전북의 미래상을 만드는 종합계획 수립

2020년에는 전북대도약의 구체적 실현으로 용비하는 전북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2019년 말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전북대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전라북도 종합계획에는 지역 개발, 산업, 문화·관광, 교통, 물류·정보통신, 생활환경, 환경, 안전·방재 등 전 분야에 걸쳐 향후 20년 동안 전라북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이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의 발전 방향과 핵심 사업의 내용도 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는 전라북도의 각 실국은 물론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전라북도의 미래 20년 청사진 구현을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위원회 및 포털,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부문별로 도내·외의 전문가를 총 망라한 연구진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북대도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추진 과제

3 빠르고 촘촘한 전북 광역 인프라 구축

올해는 중앙정부가 인프라 관련 상위계획을 확정하는 시기로 전라북도의 산업입지성, 관광접근성, 인프라 효율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인프라 투자가 미비하였던 국가기간망 동서3축과 서해안 축을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의 국가발전축에 포함하여 주요 인프라 밑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전주~대구’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등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탑재하여 전국 2시간 이내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고속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동부내륙권 국도’ ‘노을대교(부안~고창)’ 등의 주요 간선국도가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빠르고 촘촘한 광역인프라 구축으로 전라북도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06 행정 복지 **자치분권 및 복지전달체계의**

2020년 총선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치분권의 내실화,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등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한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2단계 추진 등 지방정부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로 행정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마을 단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자치분권과 복지전달체계가 정책의 최대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 대도약과 전북 뭉 찾기, 전북 자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으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자



추진 과제

1 중앙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도민 맞춤형 행정혁신 추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속하는 사업과 기능의 지방이양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 19개 부처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개별이양방식에서 일괄이양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 이양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3.57조원 규모(향후 10년간 총 36조원 규모)의 중앙 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인 사업 운영 권한을 가지게 되고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수요와 정책사업의 연계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민 맞춤형 행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추진 과제

2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재정분권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면서,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9년 15%, 20년 21%로 인상하고, 균특회계 보괄조사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26%로 조정하였다. 재정분권 2단계는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구조를 70%:30% 목표로 2021년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 및 지방분권세 도입 등 지방재정제도 전반의 다양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단계 재정분권의 폭과 범위가 불확실한 만큼, 세입분권의 강도 및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재정조정기능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진 과제

3 마을중심 도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전북형 사회안전망 구축

최근 중앙정부에서 복지투자대비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전달체계를 마을단위로 세분화하여 돌봄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하고 분절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에서 마을단위의 통합형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구축 그리고 마을단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설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마을 내 보건과 복지의 통합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돌봄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07 역사
문화
관광

소프트 파워로 세계 속에 당당한

2020년부터 전북학의 부흥과 전북관광산업의 체질개선,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로 한층 높아진 전북의 자존의식을 기대해 본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초기 철기시대 자료들이 발굴되어 가야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 단순 방문객에서 체류형 여행으로 전북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전국 생활체육대축전과 프레젠퍼리, 아·태 마스터즈대회, 세계 잼버리 등 연이어 개최되는 메가이벤트와 함께 전북 대도약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으로 발돋움시키자



추진 과제 1 전북 가야, 무성서원, 전라유학 등을 통한 전북학 부흥

최근 전북의 역사문화가 재조명 받으면서 도민의 자존감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초기 철기 자료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전북의 초기 철기는 당대 철의 테크노벨리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또한, 베일에 감춰진 실체를 드러내는 전북 가야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신라와 고려 중심의 역사에서 후백제와 태봉까지 재조명하는 후삼국 역사벨트 조성은 강호축 사업의 배경이 될 것이다. 한국 유학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한 전라유학은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흥할 중장기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추진 과제 2 체류형 여행으로 전북관광산업 체질개선

외래 관광객 방한시장 다변화, 방문지역·콘텐츠 다양화 및 고품격화 등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삶의 질 중심으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가·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라 융·복합 신규업종 출현 및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국내·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양적·질적 내실화 추구 및 모두가 함께 누리고 즐기는 선진형 전북도탈관광 체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외래관광객 지방분산화 정책에 근거하여, 전북 차원의 외래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해진 관광객 선호에 부합하는 전북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융·복합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관광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추진 과제 3 메가이벤트 겹경사, 철저한 준비로 성공 개최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2021년 프레 잼버리, 2022년 아·태 마스터즈대회, 2023년 세계 잼버리까지 전라북도에서 메가이벤트가 잇따라 개최된다. 이들 메가이벤트는 생활체육과 잼버리로 분류된다. 그 첫 단추를 꿰는 2020년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그 경험을 후속 메가 이벤트 성공으로 이어야 한다. 경기장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숙박, 식품위생, 안전관리 등에 조금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메가이벤트는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만의 업무가 아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 교육, 체육 등 모든 관계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며, 도민 역시 메가 이벤트를 우리 잔치로 인식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08 여성 여성·가족의 안전강화로 안심

정부의 2020년 성평등정책의 중점방향은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강화와 실질적 평등의 확대이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중장기 대응과 위기아동에 대한 통합적 보호, GMO완전 표시제 같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은 이런 지역 요구에 발맞춰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안심 전복을 만들어나갈 때이다.



전북 지켜내자



추진 과제 1 젠더폭력 대응 정책추진 기반 강화로 안심·안전 전북 구축

최근 불법촬영물의 유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플랫폼의 다변화로 젠더폭력이 다양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의 실천을 위하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2019.12.25)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기반한 지역차원의 중장기적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조례제정과 시행계획수립,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이 요구된다.

추진 과제 2 아동안전의 공공성 확대 및 보호체계 통합성 강화

투표권 없는 아동은 수동적인 수요자로 목소리를 잃은 채 대상화되어 왔다. 2020년은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로 아동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할 전망이다. 특히 아동을 위협하고 있는 학대·유기·빈곤, 스마트폰 중독, 성폭력, 교통사고 등 위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아동안전 공공성 확대 및 사고 예방과 발생단계부터 보호종료단계까지 아동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추진 과제 3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적 소비로 식탁안전 확보

윤리적 소비, 그린 소비의 성장은 개인우선주의의 단기적 합리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파괴된 환경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이다.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이 일으키는 생태적, 사회적 효과와 아동의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대했다. GMO완전 표시제 운동, 채식주의의 확대 등 소비의 정치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일상의 소비과정에서 환경, 윤리, 안전이 강조되는 생태적 선택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09 인구 **전북의 장소매력을 높여 인구활력을**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의 인구문제는 저출산극복과 인구감소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의 이동과 균형배분도 매우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할 때이다. 그런 차원에서 2020년을 국가차원의 지방의 인구활력을 주요한 아젠다로 설정하는 해로 삼아야 한다. 지방은 이를 위해 기존의 단순한 인센티브정책이 아닌 일과 생활의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 장소선택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인구의 균형배분과 지방정부차원의 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일과 삶의 매력적 장소로 만드는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높이자



추진 과제

1 사람활력·경제활력·공간활력으로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들이 연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례지원이 가능한 「지역인구활력특별법」(가칭)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이 가진 하드웨어 개발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결합된 지방의 매력도를 높이는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업의 구상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상향식으로 사업을 구상하되 지역인구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획일적인 물리적 인프라사업을 지양하고 사회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을 위한 소프트 신규시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추진 과제

2 지역연고와 정서적 유대를 연결하는 지역상생 인구정책 모색

절대적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연고와 정서적 유대를 연결하는 도시와 지방의 지역상생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야구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별개로 자신과 정서적 유대가 형성된 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다른 도시에 살지만 연고가 있는 지방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거나 애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2도민증 발급이나 이중주소제 도입을 통해 지방세를 지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향기부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적극적인 정책모색이 필요하다.

추진 과제

3 창조적 청년인재 유입으로 전북의 인구활력 증진

전라북도 인구문제의 핵심은 청년이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나, 청년이 들어오는 지역이나에 따라 지역의 인구활력이 결정된다. 특히 지역과 산업의 혁신을 통해 지역에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 청년인재의 유입이 중요하다. 전라북도는 제4차산업혁명분야와 첨단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한 일자리와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ICT청년업무지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업 선택에서 급여보다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일과 생활의 매력적 공간으로서 전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10 환경 전북 최고의 자산, 청정 환경을

공기, 물, 생태자원 등 전라북도 생명의 삶터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수질오염물질(하·폐수), 폐기물 등의 각종 오염원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깨끗한 환경은 전북대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듯이, 환경이 파괴되면 눈부신 대도약의 성과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2020년은 국가 환경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한 지자체 미세먼지 시행계획 및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따른 대책 마련, 자원순환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집행계획 수립, 통합물관리 구체화를 위한 물관리 시스템 재구축 등으로 전라북도 최고의 자산인 '청정환경'을 지켜낼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지켜내자



추진 과제 1 건강 전복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전략 실천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피해 최소화 노력과 함께 꾸준한 저감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2019년 2월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020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영농폐기물·불법소각 방지, 사업장 배출관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전라북도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 된다. 또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우려지역 중 중부권역에 전주, 군산, 익산이 포함되어 대기오염총량제 등의 관리를 받게 된다. 오염총량제는 자칫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나,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 과제 2 자원순환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구축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 경제구조에서 재이용 중심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대란에서 보여준 폐기물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 기본계획, 광역지자체 시행계획에 이어 2020년에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폐기물 감량문화 조성 및 자원순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매립과 소각에 의존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재이용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추진 과제 3 수질·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시스템 재구축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수질과 수량으로 이원화되었던 물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며 물관리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수질·수량의 일원화는 이·치수 중심의 물관리에서 수질 및 생태계, 물순환건강성, 거버넌스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물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화로운 통합을 비전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간 물배분 재조정 요청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본격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행정체계 변화, 전문가포럼 구성 등을 통한 전라북도 물관리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2020 10대 아젠다

J E O N B U K
I N S T I T U T E
A G E N D A 1 0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발행인_ 김선기 발행처_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